

# 믿고 따라라 결과로 답한다/ 고전 독서/ 성과 속

## <기본 개념/ 암기가 기본!>

### FEEDBACK- 세부 정보의 확인이 보장되어야 함

#### 속된 시간과 성스러운 시간의 구분

-기본적으로 이 두 시간은 비연속적이고 이질적인 시간

-이 단절의 시간은 종교적 제의 즉 RITUAL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연결되어 체험됨

-성스러운 시간은 가역적/신화적 과거의 재현/무한히 회복되고 반복 가능/ 항상 동일하고 변하거나 다함이 없는 파르메니데스적인 시간/ 신들의 창조 행위 시간/ 축제를 통해 재현되는 시간/ 신들에 의해 성화되는 시간/ 원초적인 신화의 시간/ 근원이자 시작이 되는 시간으로 이 이전에는 아무 시간도 실재할 수 없는 시간/ 신만이 존재 했던 최초의 시간/ 성스러운 공간과 동일한 성질을 지니는 시간(이질성)/ 역설적 시간(시간 자체가 비가역적이지만 성스러운 시간은 가역적이기에)

-속된 시간은 불가역적인 시간/ 이전에 어떤 시간이 존재할 수 있는 시간

#### CF) 어구 풀이

제의를 통하여 ~ 현존을 나타낸다: 실제로 존재할 수 없고 신화로만 존재 가능한 신화적 '영원'(본원)을 주기적인 제의를 통해 재현

#### 종교인과 비종교인의 구분

-표현법: 종교인과 비종교인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이야기 하고 있음

-종교적 인간은 두 종류의 시간 속에서 산다. 속된 시간에서 제의를 통해 주기적으로 성스러운 시간으로 회귀하는 신화적인 영원의 현존(현실로 존재함)을 나타낸다. 이들은 역사적 현재에만 사는 것을 거부하고 영원성과 동일시될 수 있는 성스러운 시간을 다시 회복하고자 함

-비종교적 인간은 성스러운 시간의 회복과 그를 통한 영원성을 회복을 꿈꾸지는 않지만 시간의 이질성을(농도가 다른 시간들을) 체험한다. 다만 이들의 체험은 원초적인 신화의 시간과 성화된 시간이기 아니라 힘든 일상과 구분되는 오락과 위안의 시간이다.

-이 둘의 가장 핵심적인 차이는 초인간적인 시간 즉 신의 현존이 개입되는 시간에 대한 차별적 이해에 있다. 종교적인 인간은 전후의 시간 지속과 공통점을 갖지 않는 즉 전혀 다른 구조를 가진 성화된 시간(초인간적 시간)을 체험한다. 종교적 인간에게 속된 시간은 초인간적 시간에 의해 주기적으로 정지된다.

-하지만 비종교적 인간에게 이것은 단절도 신비도 아니다. 그에게 시간은 그가 실제로 존재하는 시간을 의미한다. 그가 존재하지 않았던 원형의 시간. 처음의 시간. 성스러운 시간은 비종교적 인간에게는 맞지 않는 개념이다. 이 시간에는 처음과 끝이 있고 이 시간의 중심에는 신이 아니라 살아가는 인간이 있다

## 믿고 따라라 결과로 답한다/ 고전 독서/ 성과 속

-암기! 엘리아데는 기본적으로 모든 인간은 종교적이라는 이야기를 한다. 이때는 근원적 종교로서의 종교를 의미한다. 이때 자신이 종교적이라는 것을 알아차리지 못하는 이유는 성스러움이 세속에 은폐된 데 있다. 여기서는 비종교적 인간도 농도의 차이를 가지는 시간 체험을 한다는 것이 이와 관련된 내용이다.

### CF)어구 풀이

우리는 여기서 근대 철학의 시간론이나 개념을~: 관념적 차원이 아니라 인간이 살아가는 시간에 대해 그 현상을 서술하고자 하는 것

### CF) 조심 또 조심!- 용어가 비슷할 때

역사적 시간-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인간의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적 현존의 시간- '예수 그리스도'라는 신이 역사 속에 실재하는 인간으로 드러나는 시간. 중요한 건 이것은 일반적인 역사의 시간과는 구별되며 이후에 나오는 것처럼 신화적 시간의 고대적 개념과도 구분된다.

'인문 지문의 중요한 특징인 상충적인 개념 즉 신성(성스러움, 처음, 그 자체, 시작, 원형)과 인성(역사, 인간 중심, 개입 되지 않음)이 결합되는 느낌적 느낌!'

### 그리스도교 시간의 특수성

-그리스도교 이전의 신은 원초적 시간 속의 신이다. 그 자체가 처음이자 그 이전에는 그 어떤 시간도 존재할 수가 없었다. 신은 성스러운 시간이자 원형적 신화의 시간에 있었으며 인간의 역사 속에서는 신을 발견할 수가 없었다.

-그러나 그리스도교는 이 같은 시간 개념을 변화시켜 놓는다. 그리스도교는 예수 그리스도를 역사속에 실제 존재했던 인격으로 받아드린다. 이는 원형의 시간, 갑자기 등장하는 시간, 창조 행위의 시간과는 약간 떨어진 개념이 된다. 이로 인해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은 역사적 현존 즉 역사적으로 현실에 존재할 수 있게 된다.

-그리스도교의 제의는 하느님의 아들의 수육에 의하여 성화된 '역사적'시간 가운데서 생긴다.

-이 엘리아데는 그리스도교적 성화된 역사적 시간 보다는 신화적 시간의 고대적 개념에 주의를 기울인다. 즉 인간의 시간과 별도로 존재하는 신들에 의해 성화된 시간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다.

### CF)어구 이해

성화: 신적인 존재가 인간의 육체 안으로 들어와서 인간 가운데 거함을 뜻함. 신과 인간을 같은 시공간 안에 둠(고대의 성스러운 시간과는 구분되는 개념)

### <이해와 수용>

## 믿고 따라라 결과로 답한다/ 고전 독서/ 성과 속

기본적으로 작품은 성스러운 시간과 공간, 성스러운 자연과 인간을 이야기 한다.

이를 통해서 인간과 자연을 분리해 보려는 근대적 시각을 비판한다.

그는 이를 이야기 하면서 인간이 성과 속이라는 두 세계에 모두 몸 담고 있음을 이야기 한다.

제 비록 비 종교인이라고 하더라도 초 시간적으로 존재하는 종교적 질서 즉 신이 주관하는(조정하는) 시간과 공간과도 관계를 맺으며 살아간다. 즉 모든 인간의 종교성을 이야기 한 것이다.

### <이해와 수용+>

그에게 성스러움은 속된 것과의 변증법적 관련성 속에서 등장한다. 즉 그는 성스러움이라는 것 자체가 그것과 대립적인 속된 것과 함께 나온다고 하였다. 이를 통해 그는 성스러움의 정의를 속되지 않은 모든 것의 총합이라고 정의한다.

### <추가 자료>

세속화 시대를 사는 사람들에게 원초적인 시간 즉 역사가 시작되기 이전 신들만이 존재했던 시간을 보여주는 작품이다. 여기서 그는 성스러움을 일상적이고 세속적인 것들에 반대하여 나타나는 총합이라는 이야기를 통해 종교와 성스러움의 본질을 보여준다. 성이 '나타난다'라는 표현을 통해 성스러움이라는 것이 제의를 통해 드러나는 것이라고 이야기한다. 평범한 요단강은 예수의 침례 이후에 생명의 강으로 변모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거룩함은 언제나 세속적인 것과 긴장감을 유지한다. 이를 성속의 변증법이라 표현하는 데 인간의 삶은 항상 상반되지만 동시에 존재하는 성속의 이중 구조 하에 있게 된다. 여기서 성은 균질과 비균질, 존재와 비존재, 의미와 무의미의 이중적 구조에서 성은 자신을 역동적으로 새롭게 나타낸다.

이러한 이중적 구조 중에서 특히 성스러움과 관련된 무의식적 종교성을 깨달을 때 인간의 자신의 삶의 의미를 깨달을 수 있게 된다

### 개념과 관념/ 변증법- 용어 배경지식

### 인문학의 이분법적 구조와 결합- 과정 배경지식

### 비슷한 용어는 구분해서 천천히- 심화 이해

### <문제 풀이& 해설>

1. 그리스도교로 인한 시간에 대한 인식의 변화-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적 현존을 바탕으로 한 시간/

NOT 갑작스러운 출현/ 인간의 역사와 별개로 존재

2.비종교적 인간은 이질적 시간 체험을 인간의 경험의 일부라고 생각 그러나 이것은 인간의 근원적 종교성을 드러내주는 것

## 믿고 따라라 결과로 답한다/ 고전 독서/ 성과 속

3. 축제는 기본적으로 원형의 시간을 재현하는 것이다. 신의 창조 행위의 시간/ 신에 의해 성화된 시간/ 신의 행동/ 원초적 시간/ 인간 역사와 분리된 신의 시간이 나오고 축제 즉 성스러운 체험이 가능해 진다
4. 인간이 축제에 참여= 속적인 시간에서 성스러운 시간으로 이동하는 것/ 자연스러운 연결
5. 종교인과 비종교인의 구분이 나오는 부분은 시간에 대한 인식의 차이를 기본가 중심 화제가 된다.
6. 비종교적 인간은 종교적 인간에 비해 '덜' 다양한 시간의 차이를 인식하게 된다- 종교적 인간은 완벽하게 다른 구조의 성스러운 시간과 원초적 신화의 시간을 체험할 수 있지만 비 종교인의 인간 중심의 실제 존재하는 시간만 경험하는 것
7. 비종교인은 비역사적인 성스러운 시간이나 신이 현존하는 시간 자체를 인식하지 못함.